

# “멀리 돌아왔나?” 택시요금 인상 첫날 ‘체감’ 한목소리

기본료 2km 4천300원→1.7km 4천800원  
2년만에 조정...일부는 미터기 보고 인지  
기사들 “반갑지만 승객 줄까 걱정도”

“요금이 오른다는 얘기를 들긴 했는데, 똑같은 거리에 몇 천원 더 내려니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게 되네요.”

광주 택시 기본요금이 2년 만에 인상된 첫날인 22일 오전 9시10분께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는 빨간색의 ‘빈차’ 표시등이 켜진 20여대의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다.

승강장에 부착된 ‘광주시 택시 운임·요금 변경 고지서’를 본 일부 시민들은 인상된 요금을 확인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발길을 옮기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km 4천300원에서 1.7km 4천800원으로 인상했다. 100원씩 추가되는 거리 기준도 134m에서 132m로 단축됐으며, 할증 운임도 시간대별로 조정돼 ▲오후 11시-자정 20% ▲자정-오전 2시 30% ▲오전 2-4시 20% 할증이 각각 적용된다.

이 탓에 짐이 많아 시내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



광주시 택시요금 인상 첫날인 22일 오전 서구 광천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 요금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하려는 시민들은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양손 가득 쇼핑백과 종이상자 등을 든 한 어르신은 “아이고, 짐이 많아 버스는 힘인데 이제는

택시 타기도 겁나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쌍촌동에서 온 이연숙(원·여)씨는 “택시 미터기에 4천800원이 표시돼 있어 기사한테 물었더니 기본

요금이 올랐다고 했다. 전에는 6천원이면 터미널에 왔는데, 오늘은 7천원이 넘게 나왔다”며 “생필품도 그렇고 안 오르는 것이 없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같은 시각 광주송정역 인근 택시 승강장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택시에서 내린 이들은 역 안으로 바쁘게 이동했지만, 역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은 지하철역 쪽으로 움직이거나 횡단보도를 건넜다. 때문에 승강장의 택시 줄은 길어졌고 일부 기사들은 도로에 나와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며 서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송정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박민경(39·여)씨는 “평소 1만2천원 정도 나오는 요금이 오늘은 1만5천원이었다”며 “기사님이 요금이 올랐다고 설명해주지 않았으면 먼 길로 돌아왔나 의심할 뻔했다”고 전했다.

택시 기사들은 인상된 택시요금을 반기면서도 민원이나 사납금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다.

개인택시기사 김모(55)씨는 “요금이 올라당장은 수입이 늘어 반갑지만, 장기적으로 손님이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다고 말해 상황을 설명해줘야 했다”고 토로했다.

법인택시기사 임모(54)씨는 “요금 인상은 반길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사납금을 올리려 한다”며 “기사 처음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서형우·이연상 수습기자

##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대법원, 최근 피고측 상고 기각

음주운전 혐의 최종 ‘무죄’ 판결

도피 교사 벌건 재판 12월 재개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20대 연인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다가 67시간 만에 검거된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범행 1년여 만에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30

대)씨의 상고를 지난 16일 무변론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거된 김씨는 사고전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도주로 사고 직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었고, 마지막 술자리에서만 마신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했을 때 0.03% 미만으로 나와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그가 사고를 내기 전 총 3곳에서 마셨던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했고 면허 취

소수치가 나오자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도 유죄로 보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음주량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생리 작용에 따른 알코올 분해 현상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김씨는 1심보다 2년6개월 줄어든 형을 살게 됐다. 김씨는 범행 후 다른 지인에게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숙소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광주지법에서 벌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오는 12월9일 재개된다. /안재영 기자

## 금타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파업 ‘유보’

금호타이어 노사가 올해 임단협 및 성과급 지급에 대해 잠정 합의하면서 예정됐던 파업이 유보됐다.

22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노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임금 3% 인상 ▲성과급 6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오는 27-28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근무조별로 예정됐던 4시간씩의 부분 파업은 찬반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됐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지난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사측

과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 조합원 3천499명을 대상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참여자 3천261명 중 3천54명(93.7%)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이후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따라 일주일 동안 집중교섭과 20일 13차 본교섭이 이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성학 기자

## 광주시 “샤워기 필터 변색 수돗물 이상 無”

검사 결과 54건 중 52건 음용 적합

〈속보〉최근 광주 광산구 일부 주민들이 샤워기 필터 변색 등 수돗물 이상을 호소함(본보 10월20일 6면 보도)에 따라 광주시가 수돗물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요청한 54건의 수질검사 결과 전날까지 52건이 먹는 물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지난 17일부터 광산구 선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샤워기 필터 변색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변색 현상은 기온 변화로 주입탱에 윗물과 아

랫물이 섞이는 전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층부에 있던 망간(Mn)이 정수장 유입수에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입된 망간은 모든 검사 지점에서 먹는 물수질 기준인 0.05mg/L 이하로 검출됐다.

다만, 망간은 극미량이라도 샤워기 등의 필터에 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흥기택 덕남정수사업소장은 “이번 변색 현상은 수질 기준 이내의 망간에 의한 것으로 인체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정수처리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 5개월만에 석방

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고액의 보증금 납부와 재판 관련

자들에 대한 접근·회유 금지 등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허씨는 광주교도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다음 달 10일 재개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엄격한 보석조건을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급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럭셔리 중상급자용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알보 완전해결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     |                         |
|-----|-------------------------|
| 헤드  |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55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소비자가격 ₩ 1,180,000

|     |                      |
|-----|----------------------|
| 헤드  |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2g (±10g), 샤프트 50g |

소비자가격 ₩ 1,380,000

|     |                         |
|-----|-------------------------|
| 헤드  | 단종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
| 샤프트 |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
| 길이  | 85cm / 83cm (여성)        |
| 중량  | 525g (±10g)             |

소비자가격 ₩ 800,000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